NH투자증권

유틸리티

NH 주간 유틸리티 14:
원전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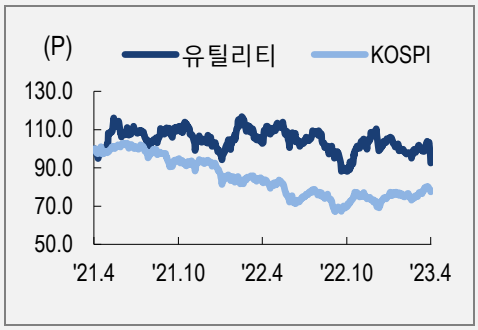
Industry Comment | 2023. 4. 27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SMR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적극 진행. 또 Holtec과 우크라이나 Energoatom 간 SMR 공급 계약 체결. 동유럽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약

Positive (유지)

	PER(배)	PBR(배)
KOSPI	16.3	1.0
Sector	-	0.4

Sector Index



업종 시가총액 25,207 십억원 (Market 비중 1.1%)

주: KRX업종 분류 기준. 2021년 4월 주가를 100p로 설정

4월 셋째 주, EU 전력시장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유럽연합(EU)의 발전량은 전주대비 1.7% 증가한 44.2TWh 기록. 발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자력 23.0%(-2.9%p w-w), 석탄 11.9%(-0.2%p w-w), 가스 11.8%(-0.1%p w-w), 풍력 15.5%(-5.1%p w-w), 태양광 9.4%(-0.2%p w-w), 수력 13.0%(+0.4%p w-w), 기타 15.4%(+8.0%p w-w)

2023년 열다섯번째 주 기준(4월 13일부터 19일까지), EU의 천연가스 수입은 전년대비 18%, 전주대비 0.6% 감소. 지역별 수입 비중은 북미,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부터 LNG 37%, 노르웨이 29%, 알제리 11%, 영국 10% 그리고 러시아 8%를 기록. 천연가스 재고는 615억m^3로 바닥을 다지는 중

금주의 주요 발전용 원자재 가격

주요 발전용 원자재 가격(2023년 4월 24일 기준)은 WTI 78.7달러/배럴(-2.7%, w-w), New Castle 190.0달러/톤(+0.9%, w-w), 동북아시아 천연가스(Japan/Korea Marker) 11.88달러/MMBtu(-7.6%, w-w), 유럽 천연가스(Dutch TTF) 12.93달러(-6.0% w-w), 미국 천연가스(Henry Hub) 2.25달러/MMBtu(-4.8%, w-w)를 기록

한·미 SMR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SMR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 SK, 한수원과 TerraPower, 현대건설과 Holtec,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출입은행과 NuScale의 계약 체결은 기존 협력 관계의 연장선.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

우크라이나의 Energoatom과 미국의 Holtec은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 내 첫 번째 SMR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 4월 24일 체결. 또 본 계약을 통해 향후 최대 20기의 SMR-160(Holtec의 SMR 모델) 건설과 우크라이나 내 현지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 확보에도 합의. 우크라이나 정부, Energoatom과 Holtec은 2017년부터 SMR 건설에 대해 논의해왔고, 2018년 2월 예비계약을 체결. 이는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러시아의 VVER-1000 원자로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

Analyst 이민재
02)768-7895, minjae.lee@nhqv.com

Jr.Analyst 이은상
02)2229-6841, eunsang.lee@nhqv.com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21일 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81.2%	18.8%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